

“노동청은 아무나 들어오는 곳 아니다”

서울노동청, 면담 요구 레이테크 여성 노동자 폭행... 유리문 부서지며 여덟 명 부상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다”라며 금속노조 레이테크코리아분회 여성 노동자들의 면담 요구를 폭력으로 짓밟았다.

노조 서울지부는 9월 1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 적폐 온상 서울고용노동청 규탄 기자회견’과 ‘현장노동청 1호 사건 레이테크코리아 엄중 처벌 촉구 결의대회’를 연달아 열었다.

지부는 기자회견에서 “서울노동청은 여성 노동자들의 청장 면담 호소를 물리력으로 짓밟았다. 적폐를 청산한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폭력행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지부는 ▲서울노동청 공식 사과와 책임 인정 ▲레이테크코리아 근로감독관 상주 ▲악질 사업주 임태수 처벌 등을 요구했다.

노조 서울지부 레이테크코리아분회 여성조합원들은 9월 18일 임태수 사장의 폭언과 바닥에서 포장업무를 하라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바로잡고



자 서울지방노동청을 방문했다. 근로감독관 안내에 따라 창장실이 있는 5층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자 서울노동청 공무원들은 갑자기 입구를 막고 여성 노동자들을 밀쳐냈다.

이 과정에서 부서진 유리문 파편들이 넘어진 여성 노동자들 위로 쏟아졌다. 여성 노동자 여덟 명이 눈과 머리, 손등이 찢어지고 갈비뼈를 다쳐 인근 백병원으로 실려 갔다. 노동청 공무원들은 다친 여성 노동자들을 향해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다”라며 모욕했다.

김도현 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기자회견에 이은 결의대회 대회사에서 “서울노동청은 레이테크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지만 여덟 달째 수수

방관하고 있다. 임태수 사장이 말을 안 들으니 노동청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라고 폭로했다.

김선희 레이테크 조합원은 투쟁사를 시작하며 분을 참지 못해 울먹였다. 김선희 조합원은 “임태수는 바닥에 앉아 포장업무를 하는 우리를 보고 ‘돈 잡아먹는 귀신’이라고 한다. 이런 현실을 호소하려 노동청에 갔을 뿐인데 노동청은 과잉반응하며 우리를 막았다”라고 분노했다.

정주교 노조 부위원장장은 투쟁사에서 “이번 폭력행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 금속노조가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8월 27일 레이테크가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로 여성 노동자들에게 내린 포장부에서 영업부로 강제 발령은 부당 배치전환이라고 판정했다. 지노위는 9월 3일 임태수 사장의 직장 안 성희롱 행위를 인정하고 ‘행위자’를 징계하라고 했다. 이른바 ‘셀프징계’를 명령했다.

“노조 인정 · 단협 회복, 명절 전까지 구체안 만들자”

광신판지분회, 본사 무기한 농성 돌입 ... “시간 끌어도 금속노조 포기하지 않는다”

금속노조 경기금속지역지회 광신판지분회(분회장 정은호) 조합원들이 노조 인정과 단체협약 회복을 요구하며 9월 18일 서울 서초동 대양제지그룹 본사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대양제지그룹은 광신판지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하자 기존 기업노조 시절 단협을 해지하고, 복수노조 설립을 추진하

는 등 노조과외에 나섰다. 광신판지분회는 회사와 14차례 걸쳐 교섭을 벌였지만, 회사가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광신판지분회는 9월 초부터 서울 서초동 대양제지그룹 본사에 상경해 노숙투쟁을 전개하며 노조 인정과 단협 회복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응답하지 않았다. 결국, 광신판지분회는 18일부터 주간 조, 야간

조 전 조합원이 파업을 벌이고 대양제지그룹 본사 점거 투쟁을 시작했다.

대양제지그룹은 조합원들이 본사 농성에 돌입하자, 광신판지분회와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사무실 문을 잠그고 직원 모두를 퇴근시켰다. 조합원들은 본사 사무실 앞 복도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다.

“새로운 포스코, 민주노조와 함께 만들자”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설립 국회 기자회견 ... “포스코지회 탄압하면 금속노조 상대 각오하라”

포스코 노동자들이 포스코의 무노조 정책 50년 역사를 끊고, 민주노조를 세웠다며 국회에서 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와 포스코지회는 9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에게 포스코의 민주노조로



당당히 자리 잡겠다고 선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한대정 포스코지회장과 지회 간부들이 참석해 포스코지회가 정권에 휘둘리는 포스코를 개혁하고, 민주적인 직장문화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9월 16일 설립 총회를 열고 한대정 지회장, 김찬목 수석 부지회장, 이철신 사무장 등 임원을 선출하고 지회 규칙을 제정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포스코지회는 포항과 광양 공장을 묶는 통합집행부를 구성했다.

한대정 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장은 “포스코는 노동 3권을 보장하지 않으며 여러 권리 침해했다. 인권을 침해하고 협박하는 탄압사례도 빈번했다”라며 “임원급이 게시판에 글을 쓰면 강제로 댓글

을 달아야 하고, 사내게시판에 회사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 보직변경 등 불이익이 있었다. 회사를 상대로 바른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증언했다.

기존에 활동하지 않던 어용 포스코 기업노조가 13일 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노조를 재건하겠다고 나섰다. 포스코가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해 포스코지회 탄압에 나설까 우려하는 상황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새로운 포스코를 만들려고 현장 노동자들이 나섰다. 포스코가 진정한 국민기업이라면 노조를 인정하고 발전의 동반자로 삼아 투명경영을 해야 한다”라며 “남북정상 회담에 동행하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에 게 민주노조를 인정하고 대화의 동반자

로 삼으라고 요구하겠다” 라고 밝혔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하나의 노조다. 포스코지회를 감시하고 탄압하면 금속노조를 상대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라고 경고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어떤 탄압이 있더라도 금속노조가 포스코지회를 뒷받침해 끝까지 책임지겠다. 금속노조가 포스코에 민주 노사관계를 꽃피우겠다” 라고 결의했다.

노동 변호사들이 ‘포스코지회 법률지원단’ 을 구성하고 포스코의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권영국 포스코지회 법률지원단장은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탄압하고 억압하는 시대를 마감해야 한다. 이제 갓 태어난 포스코지회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 모든 힘을 기울여 법률 지원에 나서겠다” 라고 약속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50년 노동탄압 경영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포스코 민주노조가 성공해 노동 3권의 주역으로 바로 섰을 때, 대한민국이 바로 설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노조 중앙위, 2018년 중앙교섭 의견접근 안 승인

17일, 125차 중앙위 열어... 10월 10일~12일 찬반투표, 선관위원, 징계위원 추가 선출

금속노조가 9월 17일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125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2018년 중앙교섭 의견접근 안’ 을 승인했다. 노조는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의견접근 안 조합원 찬반투표를 시행하고 15일 결과를 발표한다. 노조 중앙위원회는 김기풍 서울지부

부지장과 박한수 기아자동차지부 수석부지부장을 노조 10기 징계위원으로 추가 선임했다.

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전정상 기아차지부 복지실장 ▲이범재 한국지엠지부 선관위원장 ▲이승한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부지회장 ▲김양환

인천지부 KM&지회 선관위원장을 선출했다.

중앙위원들은 이밖에 ▲신분보장기금 지급 승인 건 ▲조합비 납부 유예 승인 건을 처리하고 중앙위원회를 마무리했다.